

# 2016-2

학습법 소모임  
활동사례 모음집



참가팀  
 -2016학년도 2학기 리딩리더스

팀명	과목명	학습구성원
Cha 헤는 밤(차밤)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안세빈
		최혜진
		김경은
페니미즘 책읽기	페니미즘의 도전	강승지
		안성은
		이지은
		서동인
		이민지
I will read a book	사이방가르드	최수지
		조안나
		김지영
		한상연

참가팀  
 -2016학년도 2학기 또래스터디

팀명	과목명	학습구성원
D.F	식품위생학, 식품공학 식품관능검사, 발효식품학	정석진
		김유진
		신현일
		김재형
우리의생(生)	일반생물학	류지연
		김준혁
		김창범
		정지원
		오현지
CCC (CHA Chemical Consortium)	일반화학2	황준호
		김대훈
		성예진
		서지윤
		유호주
바이오 14	분자생물학2	이명훈
		강윤근
		김송미
		이지민
BNC	일반생물학	임세연
		한송이
		김승현
		김주희
		김준혁
블랙홀	과학	류혜정
		채지수
분생짱	분자생물학2	최진호
		서진명
		주리나
미동이(미술 동아리)	입체조형	윤하정
		윤민지
		이효주
		정소연
		김연제
		전다혜
		안이슬
		오현아
		송채림
정유진		
박혜원		
권수용		
진세환		

팀명	과목명	학습구성원
Organic Pharmers	의약품제조화학1	박근영
		안성현
		유현중
		이동원
		이소영
호옹이	경영 통계	정원찬
		허진영
A+	일반생물학	이한재
		황제민
		송재일
		이성애
		이주원
보산보험 (보보)	건강보험1	이호인
		정동석
		정재현
		유강현
병아리		박주영
		김한솔
		백주은
		배가영
		오성경
공학 World	식품공학	임예지
		이서현
		황서영
		김상아
Little Tweeties	토익, 일반화학	이소영
		이채연
		최혜리
		허희선
보건의료산업학과 대표팀	보건의료산업육성정책	김지호
		김민승
		김소연
		김소은
		정중현
학점깡패	생화학, 이생물학	김현식
		지태영
		최민호
		노준호
		신효은
		이은지
		조성혁
		채하연
		최세영

팀명	과목명	학습구성원
이분의일	일반화학2	윤영빈
		권혁인
		원현준
		한준희
성실	보건학	김도희
		민유정
		안가선
		오정연
차꿈	의약품제조화학	권혁
		김동현
		박찬섭
		이재복
공작세	매체연구	김연제
		신은지
		안이슬
		오현아
폴리링고	일반생물학	진수연
		유새임
		맹지인
		박보미
		민지영
공중영정환	공중보건학	김지영
		한유정
		홍석환

참가팀  
-2016학년도 2학기 전공튜터링, 기초튜터링

팀명	과목명	학습구성원
보노보노	통계2	홍지예
		박서현
		박수경
		윤도경
		윤선호
		이지수

팀명	과목명	학습구성원
컴활능	자격증	최연경
		최유리
		우다연
		조주연
T1	토익	함희태
		윤제희
		권용호
		정세흠
풍미작렬	영어(토익시험대비)	김영주
		이지슬
		권채영
		곽보슬
		임진유
		전소현
EBS (English Best Study group)	토익	고혜선
		강주빈
		이은주
		주설민
		조윤희

# C/O/N/T/E/N/T/S



2016학년도 2학기  
리딩리더스

1

2

2016학년도 2학기  
또래 스터디



2016학년도 2학기  
전공 튜터링

3

4

2016학년도 2학기  
기초 튜터링



# 2016학년도 2학기 리딩리더스



## I. 리딩리더스 -2016학년도 2학기

### 페미니즘 책임기

#### 1. 학습소모임 개요

1) 활동 주제: 페미니즘(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나쁜 페미니스트)

2) 참여자

(1) 강승지(의료홍보미디어학과), 박민지(미술치료학과), 이지은(의료홍보미디어학과), 서동인(보건복지정보학과), 안성은(의료홍보미디어학과)

(2) 활동 현황

가. 활동 횟수: 총 4회

나. 활동 시간: 월 1회 금요일 오후(3~4시간)

다. 활동 장소: 카페

3) 활동 계획

(1) 주제 선정

가. 페미니즘 입문,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페미니즘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논의하고자 한다.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이분법적인 시각을 넘어 새로운 목소리로 소통과 공존을 이야기할 것이다.

나. 페미니즘 이슈의 현재, 그리고 미래 - 여러 분야에서 성 평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페미니즘으로 미래 사회를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토론할 예정이다.

다. 책 뿐만 아니라, 칼럼과 신문 기사, 영화 자료 또한 활용할 예정

2. 소모임 성과

(1) 독서감상문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 -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이지은〉

우리가 단지 ‘태어났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무도 이러한 질문에 대해 “예”라고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삶 속에 너무도 당연하게 들어와 있다.

(2) 독서감상문

‘여자이기 때문에’ 성추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몸을 가리고, 다리를 오므려야 하고 조신해야 하며 함부로 목소리를 높여서도 안 되고 불의에 대해서도 순응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차별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 들여왔다. 나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좋지 않은 관습인 여성에 대한 차별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 들여왔다. ‘여자아이는 행동을 조심해야해’, ‘여자애답지 않게 그게 뭐니?’, ‘남자는 계집 아이 같이 울면 안 돼’ 등의 세뇌를 받으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커 왔다.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성’에 대한 교육을 바르게 심어줘야 한다.

‘페미니스트’에 대한 인식 또한 잘못 되어 있는 곳이 많은 것 같다. ‘페미니즘’에 대해 무지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페미니즘’을 여성 우월주의, 또는 흔히 말해 ‘나서고 드센 여자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페미니스트는 모든 성별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평등하다고 믿는 사람이다. 따라서 우리는 책의 제목처럼,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한다. 언젠가는 페미니즘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 의료홍보미디어학과 강승지〉

본 책의 저자를 처음 알게 된 것은, 한 언론사의 카드뉴스였다. 그녀는 그동안 겪어온 일들에 대하여 굉장히 담담하게 이야기 했다. TED에서 강연한 내용인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카드뉴스로 변형한 글이었고, 이 책 또한 100쪽이 안 되는 소책자로 우리가 왜 ‘페미니즘’을 생각해야 하는지, 페미니즘이 단순한 의견 개선이나 우월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부드럽고도 담담하게 적었다.

다른 스터디원들과는 달리, 나는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다. 그러나 책을 읽으며, 스터디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온라인상에 네티즌들의 설전을 보며, 내가 느낀 ‘페미니즘’은 특정 누군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남성과 여성 그리고 성 정체성과 지향성을 고민할 모든 인간들이 생각해야 할 주제다.

페미니즘은 모든 성별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을 보고는, 페미니스트라고 한다. 나는 이제 페미니스트가 되고 싶다. 그리고 내 친구에게, 페미니즘을 이야기 하고 싶다. 자연스럽게 남성이 우위인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 소수자의 권리에 대하여도 생각해봐야 한다.

리딩리더스(2016-2)

지난 19일, 여성신문은 [2016 여성의 기억 16선] 이라는 타이틀로 연말 결산 형식의 기획 기사를 보도하였다. 내가 페미니즘을 배워야겠다고, 그리고 성평등에 대하여 주목해야겠다고 느끼게 된 것도 최근인 것처럼 여성으로서의 일상을 사는 데에 겪는 차별, 폭력에 대한 경험들이 공론화되는 점이였다. 이 기사도 다양했던 사건들에 대하여 깊이 있게 보도하였다.

큰 충격을 받았고 나는 '남성'이기에 생각해보지 못했을, 여성들의 피해와 경험이 너무나도 많았다. 많은 사건들에서 약자 취급을 받아야 했던 사례를 올 한해 많이 발견하였다. '메갈리아'가 등장한 이후 일상의 차별과 폭력에 대한 경험을 고발하는 여성들은 많아졌고, 나는 '남성'으로서 겪지 못할 일들을 목격하였다. 목격하게 되며 깨달은 점은 여성혐오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은 여성으로서의 '생존' 문제라는 것이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정신질환자의 범죄라고 한정하기에는 타겟이 분명한 범죄였다. 남학생들끼리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발생한 언어 성폭력 사건과 문화예술계 내의 성폭력 사건들은 '왜곡된 성문화'와 '폐쇄성'으로 인한 사건이였다.

세상의 변화를 외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앞으로 사회를 어떻게 바꿀까?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유, '남성'이라는 이유, 혹은 몸이 불편하거나 외국인이라는 이유, 또는 다른 성 지향성과 성 정체성을 가진 이유로 '소수자, 약자'로서 받아야 하는 선입견을 만들어준 사회는 바뀔 수 있을까? 한 발자국 바뀔 수 있게, 나도 일조하고 싶다.

배우 엠마 왓슨은 UN의 여성 인권신장/성평등 캠페인 "HeForShe"의 홍보대사로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1997년에 힐러리 로덤 클린턴은 베이징에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연설을 했습니다... (중략) ...슬프게도 청중들의 30% 정도만이 남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세계 인구의 절반만을 초대한다면, 세계 인구의 절반만이 이런 대화에 참여하길 원한다면, 어떻게 세상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남성들에게 정식으로 초대합니다. 양성 평등은 당신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략)

...남성과 여성은 똑같이 자신이 세심하다고 느낄 자유가 있고, 강하다고 느낄 자유가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나쁜 페미니스트 - 미술치료학과 박민지〉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인권 신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사는 물론 도서나 방송에서도 성 평등을 주장하는 주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런 평등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바로 페미니스트이다. 나는 나쁜 페미니스트란 도서는 그런 페미니즘에 입문하기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면 불편한 말들이 따라다닌다. 사람들은 편견을 갖고 페미니스트는 이렇다 식의 고정관념을 이미 갖고 있고 그 부정적인 프레임 안에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낙인 찍는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 페미니즘은 인간이 만든 운동이며 인간이 하는 운동이다. 즉, 부족한 점이 있고 실수가 있다는 것이다. 나쁜 페미니스트는 그런 페미니스트로서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 불편함에서 해답을 준다.

페미니스트이기에 모든 혐오성 매체와 자신을 구분 짓거나 불매하지 않아도 되며, 일명 온건 페미니스트의 지표를 알려준다고 생각한다. 내가 나여서가 아니라 여자기 때문에, 동양인이기 때문에, 소수자이기 때문에 남들과 조금 다르다, 힘이 없다, 란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들을 있어서는 안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회에는 그것들이 너무나 팽배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프레임에 사로잡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다. 특히 내가 이러한 혐오로부터 이익을 얻는 수혜자라면 더더욱 인지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것을 정당화하고 고착화시키기 위한 논리를 펼친다. 나는 이런 논리와 정당화에 속지 않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행동하기 위해 페미니즘 공부를 결심하게 되었고 이 책을 읽었다.

책에서는 현재 페미니즘의 인식과 행보에 대해 너무 사실이라 읽기 힘들 정도로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강간 소재나 비만 외모 등을 자극적이게 소비하며 웃음과 조롱거리로 만드는 매체들을 하나하나 늘어놓으려고 하면 끝이 없을 정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적하고 피드백을 하면 돌아오는 반응은 '왜 이렇게 예민하냐.' 는 말이다. 아닌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지탄 받고 불이익이 발생하는 세상이다. 우리는 아무리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도 그것을 끔찍하다고 여기고 넘어갈 뿐 그것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노력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원하며 침묵한다. 침묵보다 안전하고 쉬운 것은 없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끊임없이 싸워왔다.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 남성들과 똑같이 투표권을 얻기 위해, 아이를 낳고도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고 안정적인 육아 휴직을 받아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하지 않기 위해.

| 리딩리더스(2016-2) |

이 이야기들은 실제로 결과를 이루어냈고, 여성 인권은 많이 성장되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이라는 것인가?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많은 유리 천장이 존재한다. 다음세대의 여성들이 여성이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억울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것들도 분명 그 당시에는 불편한 이야기들이었을 것이다. 지금 갖고 있는 것에 위안을 삼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길 바란다 고 저자는 말한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나는 과연 스스로 내가 페미니스트라고 당당하게 말 할 수 있을까. 페미니스트라고 말하기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감히 내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말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과 죄책감을 조금 해결해주었다. 여성과 남성은 분명 다른 존재다. 하지만 이 다름에서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페미니즘은 한 방향으로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향과 개개인만의 지표가 있는 운동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페미니즘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어려움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나쁜 페미니스트 - 보건복지정보학과 서동인〉

“불편하고 두려워서 페미니스트라고 말하지 못하는 당신에게” 책의 표지에 써 있는 말이다. 불편하고 두려워서라 말하지 못한다니, 내가 배운 세상은 내가 배운 정의는 그런 사회가 아닌데... 마음 속 어딘가에 속상함과 억울함이 뻘뻘 나오기 시작했다. 부정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맞았다. 나는 페미니즘을 말 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고 그래서 당당하게 밝히지 못했다. 차별적인 발언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상황을 볼 때마다 마음 속 한 칸이 불편해졌지만 나는 무서웠던 것이다. “너 페미니스트야?”, “기가 너무 싸” 이런 말들은 나를 작아지게 만들었고 떳떳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나는 항상 페미니즘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신념을 말하기에 나는 아직 부족한 존재라 함부로 다루지 못했다. 그렇게 나는 작아졌다.

이 책은 움츠러든 나에게 말했다. “페미니즘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대하고 엄청난 무언가가 아닌 차별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에 맞서 행동하는 것, 불편함을 인지하는 당신은 페미니스트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책은 좋은 페미니즘 입문서다. 누구나 시작을 겁낸다. 그 두려운 순간에 책을 내 밀어주는 것이다. 젠더, 섹슈얼리티, 인종 차별 생각만 해도 어려운 얘기들을 것 같지만 술술 읽혀 내려간다. 페미니즘 공부를 하다 보면, 책을 읽다 보면 사실 내 주변에도 문제는 너무 많아서 속이 불편하다.

예능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들에서는 성적대상화 하거나 강간을 소재로 다루는 모습, 외모나 인종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소비를 하고 웃음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우린 그것을 아무런 여과 없이 투과한다. 불편함을 토로하고 지적하면 우리는 이른바 ‘프로불편러’가 된다. 그러는 우리의 모습조차도 웃음거리로 만들고 비난거리로 만든다.

이 책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 하는 우리에게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워야 한다고. 자기가 하기 싫고 누군가가 먼저 해줬으면 하는 일, 예민하게 끊임없이 지적하고 가시화하는 것. 가시화가 되어야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알기 시작한다.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 세상은 이렇게 더럽다. 책에 나오는 예시들을 봐도 알 수 있다. 엄청 오래된 것 같지만 따져보면 먼 과거가 아닌 투표권 쟁취, 육아 휴직후의 일자리로의 복귀, 성희롱이 없는 안전한 직장문화, 그 모든 종착점에 있는 유리천장까지. 우리는 우리의 인권을 위해 계속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

책을 읽고 나면 양가감정이 생긴다. 무언가 깔끔해진 것 같으면서도 더 복잡해진 기분.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다. 내가 페미니스트인 것에 그 어떤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듯 사람마다 생각하는 페미니즘의 방향이나 양상이 다르다는 것. 그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명쾌함과 기쁨이 생긴다. 그와 동시에 불편해진다. 아직도 내 주변은 이렇게 숨막히는 사회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읽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갑갑함이었다면 읽은 후에는 이유를 알면서도 피할 수 없는 갑갑함이 다가온다. 그렇지만 괜찮다. 이제부터 행동하면 되는 것이다. 내가 종착역이 아닌 시발점이면 된 것이다. 이 책을 읽은 당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자. 더 이상 작아지지 말자. 당당하게 말하고 행동하자. 우리는 ‘페미니스트’라고. 우리가 ‘나쁜 페미니스트’라도 우리는 페미니스트고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나쁜 페미니스트 -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안성은〉

“제가 페미니스트일까요?” 어느 친구가 내게 한 말이다. 나는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나 그런 내가 페미니스트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하던 그였다.

그래 어찌면 페미니스트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문제일 수 있겠다. 차별과 혐오는 당연히 하지말아야 할 것이어서 하지 않았을 뿐인데, 그런 이들에게 특별한 명칭을 붙여주다니 말이다. 사실은 페미니스트가 아닌 이들에게 성차별주의자라는 말을 붙여주는 것이 맞는 일이다.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단어는 존재하지만 인종 차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없듯.

| 리딩리더스(2016-2) |

또 어떤 사람들은 페미니스트라는 말 자체를 두려워한다. 페미니스트를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못생기고 피곤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를 욕하기도, 혹은 자신이 페미니즘을 지지하지만 페미니스트는 아니라고 하기도 한다. 후자의 사람들은 엄청난 혼란을 느낄지도 모른다. 왜 차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일까?

나쁜 페미니스트. 이 책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준다. "페미니스트는 나빠"라는 제목을 전복시키며 이어지는 책의 서사구조는 메갈리아의 미러링을 닮았다. 정말 페미니즘이 나빠? 이 행동들이 나빠? 끝없이 물음을 던진다. 그러니 어쩌면 낚시성 제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페미니즘을 욕하고 싶어 책을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펀치를 날려주고,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싶어 책을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나도 페미니스트예요" 말할 수 있도록.

또 이 책은 우리가 나빠져야 할 이유들을 말을 한다. 약한 것들은 너무나 쉽게 짓밟혀왔으니 이제는 강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곧이 곧대로 착할 필요 없다고, 착함의 틀은 비정상적으로 생겼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착해야 하는가. 이 물음은 사상 운동의 모든 것에 던질 수 있는 물음이다. 노동자는 부르주아에게, 흑인노예는 백인 주인에게, 식민지 지배를 받는 나라의 사람들은 지배자에게 말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착하고 순해져야 합니까?

나쁜 그리고 페미니스트 두 단어 사이의 간극에서 존재하는 이상과 현실들은 페미니즘 공부를 위한 기초이다. 페미니즘의 부정인식에 대한 재고와 우리가 페미니즘을 배워야 할 이유. 페미니즘 공부를 해본 사람들이라면 눈치 챌 것이다. 아 이 책은, 꼭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야겠구나.

### 3. 소모임 소감

#### 1차

우리 학교를 물론, 우리 사회는 ‘여성학’, 혹은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부원들 모두가 공감하였다. 앞으로 교내 혹은 사회적으로 성평등에 대하여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고민해보자는 지점을 모으게 되었다.

#### 2차

사회가 강요하는 미의 기준은 ‘여성은 날씬해야 하고, 화장을 해야 하고 적절한 옷차림을 해야 한다. 겸손하고, 순결하고, 경건해야 하고..’ 등등의 여성에게 가해지는 규범이 너무 많다는 것을 상기하였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상황이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개개인의 특성이 다르다. ‘규범’이 사회의 적절한 기준이 되고, 규범이 모여 ‘문화’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자유로움’은 규범이라는 기준에 지나치게 맞춰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3차

‘저출산’이라는 워딩이 여성에게 출산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소자화’ 등의 표현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책 안에서의 페미니즘과 실제 사례의 여성주의적인 사고를 비교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4차

한 학기 동안, 4회 이상 모임 원들과 친목도 도모하고 같이 추구하고자 하는 ‘페미니즘’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이견 없이 상호적인 토론을 진행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나며, 주위 학우들에게도 알리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 2016학년도 2학기 또래스터디

## II. 또래 스터디 -2016학년도 2학기

### 우리의생(生)

#### 1. 학습소모임 개요

1) 활동 과목: 일반생물학

2) 학습 구성원

(1) 스터디장: 류지연(의생명과학과 16)

(2) 스터디원: 김준혁(의생명과학과 16), 김창범(의생명과학과 16), 정지원(의생명과학과 16) 오현지(의생명과학과 16), 황준호(의생명과학과 16)

(3) 활동 현황

가. 활동 횟수: 총 12회

나. 활동 시간: 화요일 16:30~18:00 (주 1회, 1.5시간)

다. 활동 장소: 미래관 빈 강의실

3) 학습 활동

(1) 학습 목표

강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여 함께 문제를 만들고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학습 방법 및 활동 규칙

6명 모두가 지난주 학습 내용을 공부해오고, 강의 PPT를 띄워놓고 각자 맡은 부분을 설명한다. 나머지 다섯 명은 설명에 대한 질문을 하나씩 해야 한다. 확장된 이해를 바탕으로 전공책에 수록된 문제를 풀고, 모르는 부분을 집중 학습한다. 또 다음 강의에 다룰 내용을 각자 파트를 나눠 간략하게 요약하고 읽어본다. 시험기간에는 같이 문제를 만들어 풀어본다.

(3) 학습내용계획 및 회차별 스터디 내용

생물학의 중요한 개념을 습득하고, 동식물의 구조와 기능의 특성을 이해하며 생태학의 개념 및 중요성을 학습한다.



#### 회차

#### 주요 학습 내용

1 Nutrition and Digestion

2 Gas Exchange

3	Circulation
4	The immune system
5	Control of Body Temperature and Water Balance Unifying Concepts of Animal Structure and Function
6	2학기 중간고사 되돌아보기
7	Hormones and Endocrine System
9	Reproduction and Embryonic Development
10	Nervous System
11	The Senses
12	How Animal Move

## 2. 학습소모임 소감

### 스터디장 류지연

저희 스터디는 ‘함께 살자’는 것을 모토로 삼았습니다. 성적에 상관없이 랜덤으로 구성원을 정했고, 매 시간마다 한 단원씩 정해서 각자 분량을 나누어 발표를 준비해왔습니다. 만약 한 명이라도 준비를 소홀히 하였다면 스터디 진행이 불가능하였으므로 모두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스터디 외에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좋은 성적을 내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저는 스터디장으로서 매번 모든 파트를 공부해간 덕분에 1학기에는 8등 정도였던 성적이 2학기 중간고사 때는 1등으로 확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이 임박해서 서로 문제를 내고 풀어봤던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각 단원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다룸으로써 자신이 모르고 있던 것을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지원금으로 저녁수업 때문에 저녁을 못 먹는 조원들에게 매번 저녁을 사주고, 시험기간 응원간식도 돌리고, 중간고사가 끝나고 회식도 하는 등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취업성공 걱정도 팔자

### 1. 학습소모임 개요

1) 활동 과목: 공모전 준비

2) 학습 구성원

(1) 스터디장: 이성민(보건의료산업학과 11)

(2) 스터디원: 배명인(보건의료산업학과 11), 류화현(보건의료산업학과 11)

(3) 활동 현황

가. 활동 횟수: 총 8회

나. 활동 시간: 2016년 9월 8일~ 12월 8일

다. 활동 장소: 교내외

3) 학습 활동

(1) 학습 목표

인지어스에서 진행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당선된다.

(2) 학습 방법 및 활동 규칙

공모전에 경험이 없던 친구들과 함께 진행하는 공모전으로 세명이 모여서 주로 모임을 진행한다.

(3) 학습내용계획 및 회차별 스터디 내용

공모전에 지원하여 당선되기!!

스페인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 특히 구직활동이나 진로결정 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준비하기

### 회차

### 주요 학습 내용

1 취업성공패키지 홍보방안 모색

2 취업성공패키지 해결방안 모색 후 정보수집

포레 스터디(2016-2)

3	수집한 자료 ppt 제작 후 발표자의 발표준비
4	공모전 참여
5	공모전 발표
6	여행계획 최종 점검, 여행시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 검사 후 비행기 탑승
7	말라가에 있는 대학교를 방문하여 탐방
8	세비야에 있는 대학교를 방문하여 탐방, 탐방보고서 및 소모임 결과보고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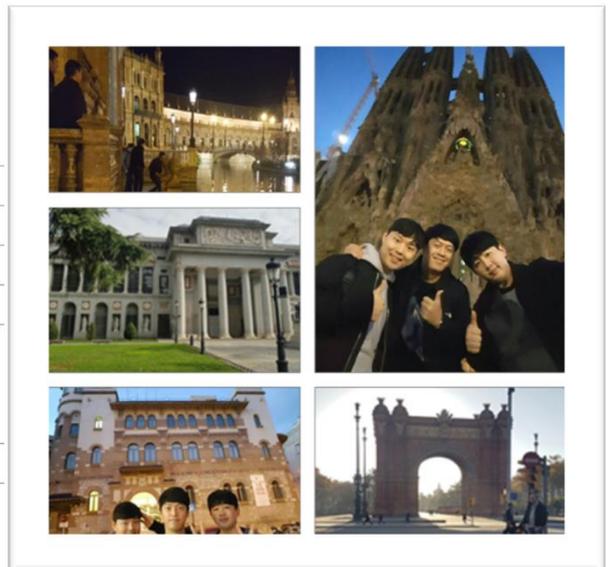
2. 학습소모임 소감

**스터디장 이성민**

학습법 소모임은 물론이고, 공모전 경험이 처음인 나에게 먼저 같이 참여할 것을 제안한 배명인 학생과 류화현 학생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다. 처음이라 피피티제작, 보고서 작성 등을 친구들에게 많이 의존했다. 미안한 마음에 발표를 맡았지만 결과적으로 수상을 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느낀 성취감을 다른 학생들도 느끼길 바라며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 이번 학기 동안의 모든 경험이 나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 앞으로 공모전 등에 있어서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고,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습법 소모임을 하는 동안 팀끼리 정말 가까워진 것 같아 너무 좋고, 좋은 환경에서 대외 공모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센터에 고마움을 표한다.

해외탐방 3팀

• 참여자명	류화현, 배명인, 이성민 님
• 참여지사	인지어스 서울 강남지사
• 취업목표	공기업 취업
• 탐방국가	스페인
• 탐방목적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 특히 구직활동이나 진로결정 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견문을 넓히는 것에 초점
• 탐방일정	2016.11.30 ~ 12.14





## CCC

### 1. 학습소모임 개요

1) 활동 과목: 일반화학 II

2) 학습 구성원

(1) 스터디장: 김대훈(바이오공학과14)

(2) 스터디원: 성예진(바이오공학과14), 서지윤(바이오공학과14),

유호주(바이오공학과14), 이명훈(바이오공학과14), 강윤근(바이오공학과14)

(3) 활동 현황

가. 활동 횟수: 총 8회

나. 활동 시간: 월요일 12:00~14:00, 목요일 21:00~23:00 (주 2회, 2시간)

다. 활동 장소: 미래관 분임토의실 및 학생회관

3) 학습 활동

(1) 학습 목표

가. 스터디원 간의 협력과 지도교수님의 피드백을 통해 스터디원 전원의 성적을

A 이상 유지

나. 일반화학2 강의와 연관되는 산업, 기술 분야를 조사해 강의내용에 적용해보기

(2) 학습 방법

수업자료 및 전공책 문제풀이와 강의 중 언급된 산업기술들을 조사하여 이해를 돕는

다. 또한 관련 내용 연습문제들을 찾아 스터디원 간에 문제풀이를 통해 응용한다.

(3) 학습내용계획 및 회차별 스터디 내용

월요일 스터디에서는 그 전주 강의에서 배운 내용들을 서로 피드백하여 완벽하게 이해하고, 목요일 스터디에서는 해당범위의 전공교재 연습문제 및 예제 문제풀이와 현대산업에 적용되는 기술을 찾아 응용 심화된 부분까지 이해한다.

### 회차

### 주요 학습 내용

1      열역학 제 1 법칙 1파트

2	열역학 제 1 법칙 2번째 파트: 여러 엔탈피와 Born-Harbor 순환
3	표준반응 엔탈피와 물리 변화 및 화학적 변화의 엔탈피
4	물리평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공부
5	열역학 제 2,3법칙과 엔트로피 증가에 따른 질서의 변화
6	엔트로피 변화와 Gibbs에너지의 이해
7	화학 평형: 평형 상수의 열역학적 근원
8	물리 평형2: 용액의 총괄성 및 콜로이드(colloid)

## 2. 학습소모임 소감

### 스터디장 김대훈

직전학기에서 해당 전공에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여 주도적으로 같은 전공을 수강하는 친구들과 튜터링을 계획하였다. 전반적으로 배우는 내용들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고등학교 때 다루지 않은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 공부 방법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었다.

스터디를 진행하기 전에는 시험을 준비할 때 단순 내용 암기만을 했었다면, 직전학기에 좋은 성적을 거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해당 교수님의 출제 방식에 알맞은 공부 방법으로 바꾸어 큰 성과가 있었다. 개인적으로도 큰 성과가 있었지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범위가 너무 달라 다른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한 것에 비하여 스터디를 했던 학생들이 매주 꾸준히 복습을 하고 넘어갔기에 더 수월했다고 생각해 많이 기쁘다.

### 서지윤

이번 화학스터디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만나서 모르는 부분을 토의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 라는 생각이 많았다. 하지만 1학기 때와는 달리 내가 다른 사람의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매주 주말에 반 강제로라도 한번 이상은 공부한 내용을 읽어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내가 생각하지 못한 관점에서 토의를 하게 되니, 1학기 때와는 다르게 공부가 밀리지 않았고, 때문에 시험기간에 더 여유 있게 공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더 깊이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다. 만약에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 다시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 **성예진**

처음 접하는 일반화학을 혼자서 공부했던 1학기와는 달리, 2학기 동안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부해보니 더욱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다. 결과에 상관없이 일반화학 공부가 즐거웠고, 단순암기보다는 전반적인 이론의 흐름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내가 아는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주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도 도움을 받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

### **이명훈**

총 두 차례의 튜터링을 진행했다. 첫 번째로 맡은 튜터링에서는 열역학 제 1 법칙에 대한 열역학적 개념을 의논하고 풀이를 공유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 진행하였으며 특히 문제 풀이에 더 집중하여 튜터링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열역학이라는 화학의 한 분야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고 포괄적인 개념을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면서 학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맡은 튜터링에서는 두 가지의 화학에서의 평형 상태인 물리 평형과 화학 평형 중 화학 평형에 대한 심도 있는 정성적인 열역학적 원리 탐구와 수식을 이용하여 미적분식 등의 전개를 통한 수학적 증명 등등의 열역학 평형에 관한 자세한 유도과정을 튜터링을 통해 깊이 있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확인하고 학습할 수 있었다. 튜터링을 통해 서로의 의견과 궁금증을 공유하고 이에 따라 열역학에 대한 견식을 높이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 더 높은 수준의 이해도를 완성하는 과정이 수행되었다고 판단된다.

---

### **강윤근**

서로의 스터디를 통해 보다 서로의 강점을 토대로 하여금 서로 미약한 부분을 보충해 나가주었으며, 또한 해당 단원의 응용 가능한 범위를 논함으로써 학습적인 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었다. 스터디 활동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거뒀다고 판단하여 다음 학기에도 참여 할 의사가 있다. 이번 학기 경험을 활용해 차후 스터디를 할 때에 스터디가 처음인 학우에게는 노하우를 전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며,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는 충분한 피드백과 공부방법 공유를 통해 서로 win-win하는 스터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Organic Pharmers

### 1. 학습소모임 개요

1) 활동 과목: 의약품 제조화학 I

2) 학습 구성원

(1) 스터디장: 유현종(약학과 14)

(2) 스터디원: 박근영(약학과 14), 안성현(약학과 14), 이동원(약학과 14), 이소영(약학과 14), 정원천(약학과 14)

(3) 활동 현황

가. 활동 횟수: 총 8회

나. 활동 시간: 수요일 16:00~18:00 (주 1회, 2시간)

다. 활동 장소: 그룹 토의실

### 3) 학습 활동

(1) 학습 목표

미리 학습함으로써 시험기간에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학습 방법

우선 스터디 직전 수업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복습하는 위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업 중 언급되었던 전 학기에 배웠던 메커니즘들을 그려보기도 하고, 새로운 메커니즘은 스터디원들과 함께 탐구함으로써 해답을 찾아나겠습니다.

(3) 학습내용계획 및 회차별 스터디 내용

의약품 합성법에 초점을 맞추어 어떠한 반응물과 시약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중점적으로 학습

#### 회차

#### 주요 학습 내용

- | 회차 | 주요 학습 내용              |
|----|-----------------------|
| 1  | 전신마취제, 수면진정제          |
| 2  | 항정신병약물, 항경련약물, 항불안약물  |
| 3  | 항우울약물, 중추신경흥분, 마약성진통제 |

4	마약성진통제, 파킨슨씨병
5	파킨슨씨병, 근육이완, 부교감계, 교감신경계
6	세로토닌 수용체, 국소마취약물
7	PDE, 천식
8	심장에 작용하는 약물

## 2. 학습소모임 소감

### 스터디장 유현중

어느덧 한 학기가 다 가고 이렇게 마지막 스터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선배님의 너무나도 감사한 도움 덕분에 스터디가 잘 진행되었고, 좋은 성과 함께 학교생활 적응도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이번 또래스터디가 선배님 없이도 잘 진행될지 팀장으로써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누군가 모르는 것을 해결해 줄 튜터가 없다는 것이 저희에겐 큰 빈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이를 채우려고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해왔고, 그래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얻어가는 것이 많았던 한 학기 동안의 스터디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스터디 제도를 제공해주신 학습지원센터의 손우성 교수님과 지도교수로서 많은 도움을 주신 김석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가능하다면 꼭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원천형, 근영, 동원, 성현, 소영이 모두 정말정말 수고 많았어요!!

### 정원천

지난 학기에 이어서 또래 스터디를 하게 됐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으나 모두 함께 발전해나가는 모습이 보이는 스터디였기에 더 보람 찾았습니다. 저 또한 전 학기에 비해 유기화학의 성적이 오르는 것이 눈에 띄었기에 합성학에 대한 흥미와 학구열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계속 학습소모임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 박근영

저번학기에 스터디를 진행하던 동기들을 보며 스터디가 학업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던 차에 마침 빈자리가 생겨 바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스터디를 진행하던 학우들에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더욱 열심히 준비를 했고 한 학기 동안 꾸준히 스터디를 해냈다는 것에 대해 깊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적과 관계없이 같이 노력해준 동기들 그리고 좋은 기회를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이동원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점은 지속적으로 유기화학 명명법과 전합성을 공부할 수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유기화학 지식은 머릿속에서 빠르게 날아가기 마련인데 명명법과 전합성을 전학과 달리 누적으로 공부한 것은 버겁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학업 성취율을 높게 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학기에도 이런 스터디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팀원들과 교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 이소영

저번학기에도 학습지원센터의 튜터링 프로그램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이번 학기에도 망설임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튜터님이 계시지 않고 진행되는 또래스터디라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튜터님이 안 계셔서 진행하는데 미숙한 점이 있었지만 차츰 스터디가 발전해 나갔고 또래스터디는 보다 스터디원 개개인의 의견을 나누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외울게 많아 어렵게만 느껴지던 의약품 합성학을 이제는 외워야 할 과목이 아니라 생각하는 과목으로 바라 볼 수 있게 되었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즐겁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 안성현

의약품 합성학은 제가 시작하기 전부터 지레 겁을 먹던 학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 메커니즘이나 반응 진행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었지만 각 반응의 시약이나 전합성 과정을 모두 암기하는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래 스터디를 통해 마음이 맞는 동기들과 차근차근 고부해 나가보니 생각보다 그리 겁을 먹을 학문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 공학 World

### 1. 학습소모임 개요

1) 활동 과목: 식품공학

2) 학습 구성원

(1) 스터디장: 김상아(식품생명공학과 14)

(2) 스터디원: 이소영(식품생명공학과 14), 이채연(식품생명공학과 14),  
최혜리(식품생명공학과 14), 허희선(식품생명공학과 14)

(3) 활동 현황

가. 활동 횟수: 총 8회

나. 활동 시간: 금요일 14:00~16:00 (주 1회, 2시간)

다. 활동 장소: 카페엔젤

3) 학습 활동

(1) 학습 목표

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성적향상

(2) 학습 방법

수업내용 복습 및 연습문제 풀이, 질의 응답

(3) 학습내용계획 및 회차별 스터디 내용

#### 회차

#### 주요 학습 내용

---

1 Sterilization I -교재와 ppt를 이용하여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였다. 배웠던 내용으로는 주로 미생물 사멸 관련 내용으로 미생물 사멸속도, D-value, 미생물 내열성, TDT 곡선 등 다양한 용어 정의를 확인하고 여러 문제를 같이 해결하였다.

---

2 Sterilization I - 9월 23일에 배웠던 개념을 복습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서로 설명해주었다. 또한 엑셀 사용 방법에 대하여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

3	Sterilization II - 열침투곡선을 직접 그려보고 여러 가지 방법(도해적분법, 수치적 분법)을 사용하여 가열 살균시간을 계산하였다.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후 설명하였다.
4	Refrigeration and chilling - 냉동의 원리(냉동장치 구성요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압력-엔탈피 선도를 이용한 예제 문제를 해결하였다.
5	냉동 곡선의 각 구간에서 식품의 변화에 대해 정리하고, 냉동 시간 예측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식을 유도하고 계산 문제를 같이 풀어보았다.
6	다양한 용어(증기압, 습도, 건조곡선 등)와 공식(BET 모델식 등)을 정리하고, 습도 도표를 이용하여 이슬점 및 상대습도를 구하는 문제를 같이 해결하였다.
7	습도도표를 사용한 문제를 다시 풀어본 후 건조시간 계산에 관한 내용을 다시 정리 하면서 간단한 예제 문제를 풀어보았다. 이외에 냉동 건조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내용을 다시 복습하였다.
8	시험 범위에 포함된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공식들을 다시 한번 유도하여 식이 나타내는 바가 무엇인지 의견을 나누었다.

## 2. 학습소모임 소감

### 스터디장 김상아

또래 스터디를 하기 전에는 늘 혼자서 공부를 했고, 또 여럿이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과 잘 풀리지 않는 문제는 작게 표시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습관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부 계획을 다시 세워보고,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다.

처음 1회 차 때는 분위기에 적응하면서 앞으로 또래 스터디를 어떻게 해야 할 지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팀원들과 그 날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는 식으로 복습했고, 문제도 같이 풀어보았다.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잘 풀리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부분에 대해 도움을 받아서 쉽게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이후 혼자 문제를 다시 풀면서 하게 된 생각은 혼자서 고민한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른 조원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금세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나도 다른 조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웠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3회 차에는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시험 준비를 하였다. 시험에 종종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때마다 엑셀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문제를 풀지 못했었다. 조원들과 미리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면서 다시 한 번 프로그램 사용법을 숙지하게 되었고, 시험을 볼 때도 당황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중간고사가 끝난 후에도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시험 준비를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모르는 것은 물어보면서 바로 해결하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적절한 시간 분배로 시험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다.



## 2016학년도 2학기 전공 튜터링

### III. 전공 튜터링 -2016학년도 2학기



#### 보노보노

##### 1. 튜터링 개요

1) 활동 과목: 통계 II

2) 학습 구성원:

(1) 튜터: 홍지예(보건복지정보학과 16)

(2) 튜티: 박서현((보건복지정보학과 16), 박수경(보건복지정보학과 16), 윤도경(보건복지정보학과 16), 윤선호(보건복지정보학과 16), 이지수(보건복지정보학과 16)

(3) 활동 현황

가. 활동 횟수: 총 8회

나. 활동 시간: 화요일 18:00~20:00 (주 1회, 2시간)

다. 활동 장소: 분임토의실

##### 3) 학습 활동

(1) 학습 목표

선수 과목인 통계 I 에 이어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익히고 통계 I 과 II 를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학습 방법

매 시간 배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할 것이며 질문이 생기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시험 직전에는 작년 시험지를 풀어보며 시험 전 자신의 실력을 점검합니다.

(3) 학습내용계획 및 회차별 스터디 내용

통계 I 에서 배운 내용에 이어 개념 위주로 학습할 예정이며 이번에 내용이 저번보다 심화되므로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직접 계산 풀이를 해보면서 통계를 익힐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회차

#### 주요 학습 내용

1 통계 I 복습, 통계적 가설검정 설명, 질의응답

2	지난 시간 내용 복습, 작년 중간고사 시험지 풀기, 질의응답
3	지난번 내용(2표본 t검정, 카이제곱 검정) 복습, 질의응답
4	분산분석 설명, 질의응답
5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설명, 질의응답
6	비모수검정 설명, 쪽지시험, 질의응답
7	배운 내용 미니탭(Minitab) 실습 자료 복습, 질의응답
8	한 학기 내용 복습, 작년 기말고사 시험지 풀기, 튜터링 마무리

## 2. 튜터링 소감

### 튜터 홍지혜

저번 학기에 이어서 이번 학기에도 튜터링을 하였다. 사실 후배들과 시간도 맞추어야 하고 나는 시간표에 통계과목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튜티가 튜터링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번 학기도 참여하게 되었다. 저번학과와 다르게 멤버도 조금 바뀌긴 했지만 다들 다 아는 사이라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저번과 같이 복습하고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했었고 튜티들도 질문을 많이 하여 잘 운영 된 것 같다. 이번 학기에 학과행사나 과제 때문에 바빠 저번학기만큼 운영되지 못했더라도 이번에도 서로 시간을 맞춰가면서 열심히 참여한 것 같다. 이번 학기에도 도움을 준거 같아 뿌듯하고, 튜티들이 질문을 하고 알아갈 때 귀찮더라도 튜터링을 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1년의 튜터링 경험으로 개인적으로 후배들과 더 친해진 시간이었고, 통계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려주지는 못해도 튜티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으로 너무 뿌듯한 시간이었다. 튜티들에게도 1년 동안 수업이 끝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짬짬이 모여 튜터링에 임해주어서 고마웠다. 전공튜터링을 통해 1년 동안 값진 경험을 한 것 같다.

### 박서현

1학기 때에는 선착순에 못 들어 아쉽게 튜터링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1학기에 수업을 들을 때든, 기말고사를 볼 때든 내심 아쉬웠던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학기 때 기회를 잡아 튜터링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업은 강의식으로 이루어져 중간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그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는 크나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튜터링은 그 단점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중간에 모르거나 헛갈리면 바로 튜터한테 질문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고 저에게 매우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박수경

1학기에 이어서 2학기에도 튜터링을 하였는데, 튜터링은 항상 제가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를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꾸준히 예습과 복습을 하여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곤란할 때가 많은데 튜터링 활동을 통해 혼자 고민하지 않고 선배에게 물어보고 자유롭게 의견교환을 하며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윤도경

저번 학기에 친구가 흥지에 선배님하고 같이 튜터링을 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재미있게 수업하는 것 같아서 나도 참여하고 싶었다. 드디어 이번 학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수업시간에 교수님께 여쭙어 보려고 했다가 까먹은 것들이나 사람이 너무 밀려서 여쭙어 보지 못한 질문을 튜터링 시간에 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다. 저번에 학기에는 통계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시험을 봤는데 이번 학기는 그래도 이해하고 풀 수 있었다. 그리고 시험 전에 기출문제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경험으로 막상 시험시간에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풀 수 있었다. 물론 다 맞았다는 보장은 없었지만 중간고사에 비해서 내가 풀려고 시도한 문제가 많아서 뿌듯했었다. 이렇듯 가까이 물어볼 편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튜터링의 장점인 것 같다.

### 윤선호

2학기 전공 통계 튜터링 역시 나름 열심히 참여하고 진행했던 것 같다. 1학기 때 비해 내용이 어렵고, 이정도면 타 대학 통계학과 통계학도들과 비교해도 전공지식은 별반 차이가 없겠구나 싶었다. 회귀분이란 단어만 듣고 왠지 공학수학처럼 느껴졌는데 전혀 상관없었고 나도 조금만 노력하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가장 어려웠다. 기말고사를 치르다가도 그 부분에서 막혔던 기억이 난다. 전체적으로 이번 학기는 통계과목에서 큰 빛을 발하지 못해서 아쉬웠다.

## 이지수

사실 이번 학기는 튜터가 통계를 배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탁해서 하게 되었다. 자신의 공부가 아님에도 선뜻 해준다고 해서 너무 고맷다. 그래서 목표를 저변학기 성적보다는 한 단계 높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다. 시험 전에 미리 모르는 것을 체크해두고 물어보러 가고 수업 때도 최대한 졸지 않고 어려운 부분을 확인하고 물어보도록 했다. 두 번의 튜터링을 하면서 느낀 것은 공부하려는 의지만큼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선생님께 배우는 것이 아니고 선배한테 배우는 거라서 정확한 개념설명보다는 문제를 푸는 방식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그만큼 모르는 것이 생기고 확실히 알아내려고 한다. 이러면서 좀 더 확실히 공부할 수 있는 것 같다. 비록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전공 튜터링을 통해 공부의 지도 받을 수 있었고 나중에 나도 이런 프로그램에서 튜터가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 2016학년도 2학기 기초 튜터링



## 풍미작렬

### 1. 튜터링 개요

1) 활동 과목: 토익

2) 학습 구성원

(1) 튜터: 이지솔(식품생명공학과 14)

(2) 튜티: 권채영(식품생명공학과 15),곽보슬(식품생명공학과 15), 임진유(식품생명공학과 15), 전소현 (식품생명공학과 15), 고혜선(식품생명공학과 16)

(3) 활동 현황

가. 활동 횟수: 총 8회

나. 활동 시간: 목요일 16:00~18:00 (주 1회, 2시간)

다. 활동 장소: 과학관 405

### 3) 학습 활동

(1) 학습 목표

가. 영어공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어휘력을 갖추기 위해 영어단어를 암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토익 성적 향상을 위해 토익 보카를 학습합니다.

나. 문법공부에 있어서 암기성 내용들을 정리하고 암기합니다.

(2) 학습 방법

매일 주중에 단어를 1회차씩 암기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서 그룹스터디를 통해 단어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단어 시험지를 미리 준비해 온 뒤 단어의 뜻을 적는 형태로 셀프 테스트 및 채점합니다. 틀린 어휘는 개인 노트에 따로 정리합니다. 불참이나 단어를 못 외워 온 경우는 벌금을 냅니다.

(3) 학습내용계획 및 회차별 스터디 내용

가. 학습교재로 지정한 보카 책 전체를 한 학기동안 반복 학습할 계획

나. 토익 문법책에서 부분 별로 필요한 내용들을 참고할 계획

다. 실제 토익시험을 치는 것과 비슷한 환경에서 리스닝 연습을 할 계획

기초 튜터링(2016-2)

회차	주요 학습 내용
1	토익 보카 테스트 01-04강 (주중에 외워온 영어단어를 셀프테스트)
2	토익 보카 테스트 05-09강 (주중에 외워온 영어단어를 셀프테스트)
3	토익 보카 테스트 10-14강 (주중에 외워온 영어단어를 셀프테스트)
4	토익 보카 테스트 15-19강 (주중에 외워온 영어단어를 셀프테스트)
5	토익 보카 테스트 20-24강 (주중에 외워온 영어단어를 셀프테스트)
6	토익 보카 테스트 25-29강 (주중에 외워온 영어단어를 셀프테스트)
7	토익 보카 테스트 모든 범위 (주중에 외워온 영어단어를 셀프테스트)
8	토익 보카 테스트 모든 범위(주중에 외워온 영어단어를 셀프테스트)

2. 튜터링 소감

**튜터 최연경**

먼저, 스터디 진행을 위한 주교재로 [해커스 토익보카] 책을 선정했습니다. 해커스 어학사이트에 이 교재를 활용할 수 있는 보카 테스트를 다운받은 후, 교재에 수록된 모든 단어들을 총 3번 셀프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제본하여 부교재를 미리 만들었습니다. 테스트지가 제본된 부교재를 받은 학우들은 영어공부에 대한 의지가 불타오른다고 모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 밖에도, 스터디 진행을 위한 많은 규칙들을 정하였습니다. 주중에 정해진 양의 영어 단어를 외워야만 스터디날에 단어테스트를 시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중에 스스로 외우는 것이 저희 스터디에서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것을 밀리지 않고 잘 하기 위해 단어를 외우고, 스스로 단어테스트를 정리한 것을 매일매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매일 올리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을 걷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꾸준히 영어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스터디 후반으로 갈수록, 학과공부, 과제, 학술제 행사등을 이유로 단어 외우는 것을 소홀히 하는 팀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처음 스터디를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영어공부는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팀원들이 여러 할일 들로 인해 힘든 와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영어공부를 하고 스터디에 임해주었습니다. 스터디를 마무리하는 지금, 열심히 해준 모든 팀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팀원들 중에 평소에 꾸준히 단어를 외웠던 사람은 전범위에 대한 테스트도 많이 맞았는데, 반대로 평소에 단어 외우는 것을 미루었던 팀원들은 전에 했던 단어들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팀원들은 열심히 하는 다른 팀원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학기 중에 스터디를 했던 것을 겨울방학 때도 각자 스스로 이어나가서,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들일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스터디가 끝난 후, 다들 학기 중에 영어 단어책 한 권을 끝냈다는 사실에 정말 뿌듯해했습니다. 보통 학기 중에 토익 보카책 한 권을 다 본다는 것이 말이 쉽지, 막상 혼자서 하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터디라는 연대를 통해서 스스로의 의지가 나약해질 때마다,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 컴활능

### 1. 튜터링 개요

1) 활동 과목: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2) 학습 구성원

(1) 튜터: 최연경(바이오공학과 15)

(2) 튜티: 최유리(바이오공학과 15), 우다연(바이오공학과 15), 조주연(바이오공학과 14),

(3) 활동 현황

가. 활동 횟수: 총 8회

나. 활동 시간: 수요일 11:00~13:00 (주 1회, 2시간)

다. 활동 장소: 스터디룸

### 3) 학습 활동

(1) 학습 목표

자격증 취득(컴퓨터 활용능력 2급)과 컴퓨터 능력 향상

(2) 학습 방법

개념을 서로 잘 익히고 지출문제를 푼다. 오답 토의, 실력 검정을 위한 테스트

(3) 학습내용계획 및 회차별 스터디 내용

<필기> 컴퓨터의 일반/ 멀티미디어 스프레드시트 일반

<실기>스프레드시트 실무

### 회차

### 주요 학습 내용

1	시나공 기출문제집 핵심 요약본을 통해서 범위를 정하고 각자 공부해 와서 개념 정리를 하였다.
2	section 3 조건부 서식, section 4 고급필터/자동필터에 대한 개념을 각자 공부해온 뒤 자신이 이해 안되는 부분을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그것을 대답해주는 식으로 공부하였다.
3	컴퓨터 활용 Section5 함수1-통계함수, 텍스트함수와 Section6 함수2-수학/삼각함수, 찾기/참조 함수를 공부하고 10/11 내용을 퀴즈로 확인하였다.
4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날짜/시간 함수에 대해 서로 퀴즈를 내주고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하였다.

---

## 기초 튜터링(2016-2)

---

5	기출문제를 풀어 와서 틀린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개념정리를 다시 하였다.
6	토론을 통한 기출문제의 점검 및 오답노트 작성
7	전반적으로 필기 공부를 거의 완성했고 그 동안의 공부했던 것을 계속 테스트하기 위하여 “후딱”이라는 지식공유프로젝트 앱을 사용하였다.
8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재며 문제를 풀었고 각자 약점인 문제유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

## 2. 튜터링 소감

---

### 튜터 최연경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튜터링을 시작했다. 튜터링을 하면서 컴퓨터활용능력이란 과목을 공부해가면서 모르는 것을 서로 물어보고 대답해주고 반복하면서 개념을 익히는게 확실히 도움되었고 서로 먼저 시험 본 사람들이 시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조언을 서로 해주면서 현실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 다음 에도 튜터링을 할 생각이다.

---

---

### 최유리

기초 튜터링을 통해서 혼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공부 계획도 계획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지키게 되었다. 서로 모르는 내용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면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테스트를 준비하면서 더 공부하게 되고 열심히 하였다. 먼저 시험 본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튜터링 덕분에 필기를 붙을 수 있었다.

---

---

### 박근영

혼자 하면 게을러서 하지 못하는 공부를 조원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또한 같이 병행해서 수업을 들은 엑셀실무활용에 엄청 도움이 많이 되었고, 둘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 이번 학기 또래스터디를 통해 알차게 보내게 되어서 정말 좋았다.

---

### 조주연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부한 적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조금은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혼자 할 때 내가 놓친 부분을 다른 사람이 알려주었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건 내가 알려주면서 함께하는 공부가 다니 후련하기보다 서로 상호보완적인 공부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 그땐 자격증이 아니라 전공과목을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